

97주년 38 여성의 날 맞이 자료집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 저지
여성노동권 쟁취
빈곤폭력, 빈성매매

마녀, 선언하다

feminismforeveryone.cyworld.com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학에 입학 한 뒤 벌써 세 번째 맞는 여성의 날이네요.

새내기 시절 선배언니의 손에 이끌려 '여성주의'가 무엇지도 모른 채 따라갔던 '38 여성의 날 문화제'를 시작으로, 작년엔 문화제 사회자로 매년 뜻있고 알찬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올해 맞이하는 38여성의 날은 저에게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38여성의 날을 준비하며 또 기획단장을 결의하며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 2년이란 시간동안 나름대로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하려하니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군요. 회의를 하면서 혹은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혹, 내가 말한 것이 여성주의에 어긋난 것은 아닌가?', '내 행동이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부지기수로 하고 결국 과연 내가 고민했던 '여성주의'란 것은 무엇인가? 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고민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주지는 않았는지, 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고민과 활동이 내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닌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당연히 그래야 하나'라는 식은 아니었는지.

성신 21대 인문대 학생회 정학생회장 유미

04년 진행되었던 9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문화제. 1000여명이 넘는 대학생들과 함께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후 제 지난 활동, 제 주변의 많은 여성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남동생의 학비 때문에 활동도, 학교도 그만두어야 했던 동기, 새벽 5시 출근해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져라 일하고도 60여만 원의 월급밖에 받지 못하고 계신 학교 환경미화 아주머니들, 여성학 수업시간에 들었던 다양한 성폭력 사례들, 직장 일을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엄마.

참 다양한 모습, 다양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난 얼마만큼이나 이들과 함께하려 했고, 이들의 짐을 덜어주려 노력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고 내 자신은 편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지난 해 유쾌했던 기억을 꼽으라면, 3월에 진행되었던 서울대 간병인노동자 투쟁을 말하고 싶어요. '간병인도 노동자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당해고를 감행하는 병원 측에 맞서 열심히 싸우시던 그 분들. 당시 여성노동자, 그것도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간병인 여성노동자분들의 승리가 무척이나 반갑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언제나 밝은 얼굴로 노래하고, 이야기 하시던 간병인노조 지부장 동지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서울대 간병인노동자들에게 관심 가져준 모든 분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의 이 말이 지금의 저에게 또 '여성주의'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의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성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그 실천이라 하여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하기 보다는, 지금의 여성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다양한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 기울이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여성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로 97번째 맞는 여성의 날입니다.

해마다 다양한 여성의 권리에 대해 주장하고 이뤄내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9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여성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그리고 우리가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성주의'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녀들에게 관심 갖고 그녀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 생각해요. 더불어 여성의 날 하루 열심히 고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야 하구요^^

여남이 모두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첫걸음!

바로 오늘,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standby-Q



From 2005 38여성의 날 투쟁기획단 단장
성신 21대 인문대 학생회 정학생회장 유미가

스무살에 맛볼 향기로운 자유

48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전국학생연대회의 해소위원장 정화



스무 살 이제 막 맛 본 자유의 공기는 이제까지 맡았던 공기보다 조금은 향기로운가요? ^^

그 때, 제가 새내기였을 때도 넘치는 자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도 가지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 잘하지는 못해도 사람들이 좋아서, 분위기에 취해서, 또 취하도록 술을 마시던 기억들, 조금은 어색하지만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꺼내던 기억들, 또 어느 집회, 어느 깃발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던 기억들, 기억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조금은 다르겠지만 나의 기억 속 어느 순간에 서 있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당신과 가까이 다가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문득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누구에게나 평평한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 그 어느 기억 한 조각 속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밤 늦은 술자리, 내 옆에는 남자 선배들만 남아있었던 그 때, 농활(농민학생 연대활동)에서 '힘 잘 쓰는 남학우로 보내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오기로 무거운 담배알들을 나르고는 앉아있었던 그 때, 과외 가는 길, 길거리에서 요란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나레이터 모델을 무심히 지나치던 그 때,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해야하는데 비정규 서비스직 외에는 할 게 없었던 사촌 언니의 꾸념을 들던 그 때,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서 회사가 아닌 '어린이 집'을 부순 어느 자본가를 규탄하던 그 때, 어느 명절 엄마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남동생에게 물을 갖다달라는 주문을 받던 그 때, '그 때'의 기억들이 단지 분절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일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공포'인 동시에, '나는 (무성적인) 인간이 아닌 '여성'으로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것 자체로 귀찮고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 왜 '별'일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는 것이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암묵적 합의 속에서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 '여성'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야'라고 말할 때 '대체 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 일상의 질서를 거꾸로 뒤집지 않고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어서, 어쩌면 '여성'임을 잊고 사는 게 더 편하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여성'들이 있다면 뒤집힌 일상을 같이 만들고 살아갈 여자친구들이 있다면, 언니들이 있다면 훨씬 유쾌하겠지요. 같은 고민을 해 온 사람들, 같은 싸움을 벌여온 사람들이 바로 곁에 있다면요.

단지 '여성/남성'의 차이를 근거로 '차별'해왔던 시간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왔던, 혹은 저항해왔던 가려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1만 5천명의 여성 방직 노동자들이 봉기한지 97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차별의 역사와 저항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의 여성의 삶을 똑바로 보는 것, 언뜻 보편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여성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것, 보이지 않았던 여성의 권리들을 '존재하는 것'으로 꺼내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가려진 반쪽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의 투쟁에 나의, 당신의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겠지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은, 여성입니다.





97주년 세계 여성의 날 맞이 '마녀, 선언하다' 문화제는 중세 시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성욕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권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몰려 처형당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들의 이름, 마녀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기획의 辯 마녀, 선언하다

기획의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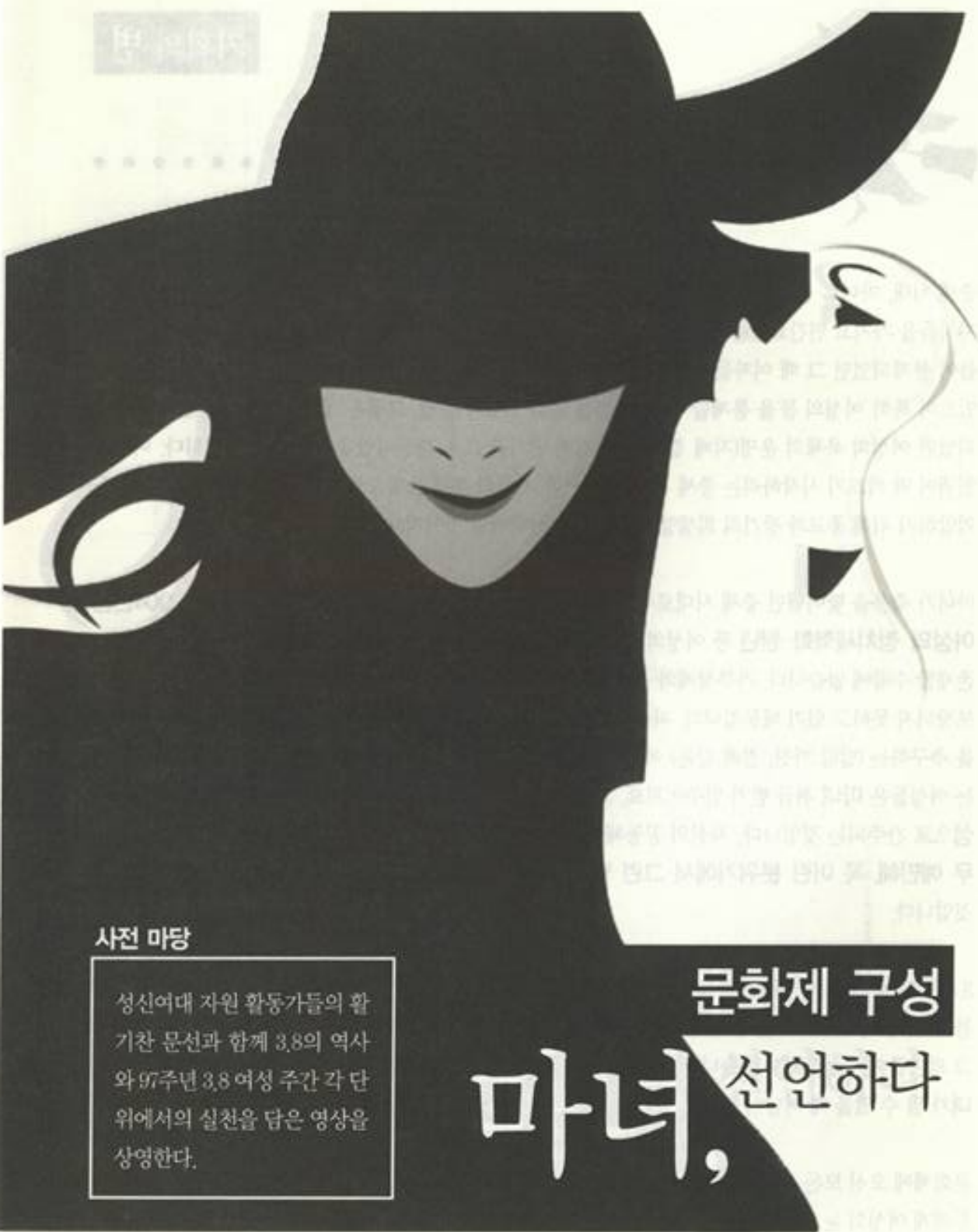


중세 시대, 마녀로 몰려 사형 당했던 여성들은 출산이나 낙태, 피임과 같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민간요법을 전수해주던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종교(기독교)에 의해 성에 관한 지식들이 통제되었던 그 때 여자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결혼과 가족**에 철저히 종속되었던 여성의 육체의 운명(지배 질서)에 어찌면 반기를 드는 행동이었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막 싹트기 시작하려는 중세 시대, 남성들은 자신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녀들을 억압하기 위해 종교와 광기의 희생양으로 여성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마녀가 죽음을 맞이했던 중세 시대로부터 몇 백 년이 지난 오늘,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다. 2004년은 **여성의 정치세력화 원년** 등 여성의 권리는 신장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마녀**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 속에서 여성의 권리는 몇 백 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남성에게 순종하는 여성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발랑 까진, 걸레 같은) 여성의 이분법 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신장시키고자 하는 여성들은 **마녀** 취급 받기 일쑤이지요. 그런 여성들은 전통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나쁜 여성**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동체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문제제기를 해본 여성이라면 **넌 너무 예민해, 꼭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해야 하니?, 넌 너무 드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3.8 기획단은 여성의 눈으로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남이 함께 행복하고 유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여성, **마녀**에게 긍정성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마녀는 결코 **악한 여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마녀**가 될 수 있을 때 여남이 평등한 유쾌한 세상은 올 것입니다.

문화제에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는 **마녀 선언**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모처럼 문화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전 마당

성신여대 자원 활동가들의 활
기찬 문선과 함께 3.8의 역사
와 97주년 3.8 여성 주간 각 단
위에서의 실천을 담은 영상을
상영한다.

문화제 구성

마녀, 선언하다

문화제 구성

1막: 21세기, 마녀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첫 장면은 중세 시대 마녀 재판. 여성들에게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마녀 루이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 마녀 루이는 이 시대는 여성의 권리를 보
장해줄 수 없는 시대이며 내가 다시 태어나면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에
서 태어나겠다라고 외치며 주문을 외우며 사형의 이슬로 사라진다.
2005년, 한국의 한 대학의 교정 마녀 루이는 새내기가 되어 쓰러져 있다. 이 막에
서 마녀 루이는 동기 니나와 3학년 남자 선배 가람을 만나게 되고 이곳은 여남이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하지만 루이의 대학 생활은
루이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고 여성은 여전히도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
며, 권리는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접하게 된다. 매번 상황마다 문제제기하는
마녀는 이 시대에서도 또 다시 마녀 취급을 받게 되고...

2막: 마녀 구출 작전!



좌절한 마녀 루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구출 작전이 시작된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희망의
주문. 반성폭력 운동, 반성매매, 여성 노동권 쟁취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크쇼 형
식으로 진행되는 2막에서는 현대판 마녀 재판이 진행된다. 마녀 루이를 구출하
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변호와 영상 증거, 그리고 마녀를 격려하기 위한 문화 공
연이 벌어진다. 여전히 여성의 억압이 존재하는 현실이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내보자는 발언과 실천의 제안이 이루어진다. 루이는 점차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되고 마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오히려 훨씬 소중한 존재임
을 깨닫게 된다.

3막: 마녀, 선언하다! - 축제의 장



마녀 구출 작전에 성공한 모두는 다 같이 마녀와 같이 살아가기를 결의하면서
마녀 선언을 한다. 마녀 선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여성주의적으로 적극
적으로 재구성해내고 여성의 권리 찾기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마
녀 선언을 한 모두는 자축하며 축제의 밤을 열어 나간다.



창진

오늘 침 참여한 성대 동연 문화사랑국장입니다...^^ 뒤늦게 참여해서 한 것도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 남성성이 존중되길 바라는 만큼 여성성도 존중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획단 소개

마녀, 선언하다

갤러리



97주년 38여성의날 문화제 기획팀 갤러리입니다! ^^ 올해로 97주년을 맞는 여성의 날입니다. 작년엔 새내기 기획단으로 무대에 올랐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하하... ^^ 지금 이땅은 여성들이 살기엔 너무나도 힘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성의날 문화제에서부터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요~!

리치



새내기 및 38 여성의 날 문화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건국대 동아리 연합회 선전국장 리치라고 합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한 지 3년여 가량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많았지만 이번 여성의 날 문화제에 참여하게 된 것 역시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성에 대한 제 자신의 생각을 반성할 수 있는 가장 뜻깊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으로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며 많은 여성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중 저희 어머니의 삶이 문화제를 기획하며 가장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성으로 살아가며 겪어야 할 수많은 가사 노동, 사회적 불평등들, 이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이번 문화제와 영상을 기획하며 여러분들이 여성으로써 앞으로 겪게 될 이와 같은 많은 고민들을 담아 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등사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언제나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문화제에 한번 꼭~ 빠져 봅시다!

승하



대학생이 되어 처음 주의깊게 바라본 주변은 이상한 것 투성이었죠. 여자가~ 남자가~ 로 시작하는 우리를 가두는 말들. 이것을 거부해서 우리가 마녀로 불리운다면 당당히 마녀임을 선언하겠습니다. 여성인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한 한걸음, 38 여성의 날 문화제에서 내딛어 볼까요? 다시 한번 새내기의 마음으로 나타나 되어 두근두근 봄바다와 같이 일렁이고 있을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나오리



안녕하세요!! 문화제 기획팀에 참여하게 된 성신여대 총학생회 나오리입니다. 38 문화제 기획팀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문화적/문예적 측면으로 풀어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 여러 동무들과 함께 문화제를 만들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번 문화제가 그냥 한 번의 형식적인 문화제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제를 통해 성신 학우들과 여성주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구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 여성임을 긍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화제를 보러 오시는 새내기 및 여러 분들과 함께 여/남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많은 실천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제에 오신 많은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문화제 기획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



투쟁 과제 해설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 저지!

-여성노동권을 중심으로-



0. 여성시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출범직후부터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강금실씨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충격이라면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사회가 위낙 남성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보니 여성이 어떤 사회영역에 진출하기만 해도 그 여성에게는 '최초의' —진출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왔다. 하지만 단순히 금녀(禁女)의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디지털산업이나 디자인산업 등 최첨단 업종에는 섬세하고 감수성이 뛰어난 여성이 더욱 적합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여성 인력의 전략적 활용'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 그야말로 여성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기도 한다. 반듯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상품 디자인을 구상하다가 해질녘 퇴근하여 친구들과 패밀리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집에 가면 홈시어터에서 영화를 한편 감상하는 세련된 고임금 여성노동자의 모습이 머리 속에 그려진다.

1. 오늘날 여성노동자들의 삶

이러한 여성노동자의상이 떠오르는 것은 수많은

TV광고와 영화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와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우리의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있게 지켜보더라도 그러한 이미지와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보험아주머니들, 학습지 교사들, 병원의 간호원 언니들, 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아주머니들, 텔레마케팅에 종사하는 여성들 등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현실의 여성노동자들이다. 통계상으로는 여성노동자 중 70.5%가 임시일용직이며 임금은 남성의 63%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학에서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벽 5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을 하면서, 400~450평에 이르는 면적을 청소하면서도 한달 생활비로는 턱없는 567,260원이라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¹⁾ 그리고 이 분들은 가정에서도 가사노동을 담당하거나 자식들을 키우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잠자는 시간 이외에 모든 시간이 '알'인 것이다.

2.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여성노동의 주변화

여성들이 특정 직종들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취

1) 고려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상황, 「2005년 겨울캠프 자료집」, 중에서

업되는 것은 물론 사회전반의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금녀의 영역에 진출한 여성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텔레마케팅에서 남성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 않은가? 여성이라면 상냥하고 고운 목소리로 호감을 살 수 있어야한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그러한 직종에 어울린다는 생각은 아직도 충분히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은 남성이라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은 여성에게 적은 임금을 주는 '합리적인' 이유로 제시되곤 한다. 왜냐하면 남성이부장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남성노동자들에게 가족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생계에 '보태'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유로 남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구조조정시 여성노동자들이 해고순위로 선정되는 경우도 수다하다.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성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이는 오늘날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만큼 허구적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 안착된 이후 실업자가 늘어나고 가게가 힘들어짐에 따라, 여성들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미 너무나 많은 일을 하

고 있다. 남편이 실업자인데 꿈도 없고 대책이 서지 않아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이 이미 평범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으며 여성들의 노동을 가치절하 시키고 있다.

3. 여성에게 전가되는 이중의 부담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편견도 계속 작용하여 여성에게는 더욱 많은 일이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키면서도 과거에는 한 가지를 포기했다면 둘 다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가사노동을 가정 내에서 적절하게 민주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여지도 희박하고, 보육도 사회적으로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여성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성이 이중의 부담을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편견이 IMF이후 신

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여성들에게는 시간제 노동(part time)이 일반화된다. 시간제 노동은 임금도 적을뿐더러 직업의 안정성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육아를 위한 휴가는 유상으로 이루어

여성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다. 그것은 재취업의 기회가 주어졌을때에도 다르다. 여성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길은 아예 그림과 같이 '문처럼' 포장만 되어 있을 뿐이다.



어지기 때문에 휴가를 냈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적은 임금이 더욱 적어지는 것이다.

4. 노동자들 사이의 분할과 배제 신자유주의와 여성들의 빈곤화

여성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차별적 조건들은 앞서 언급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IMF이후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서 불안정노동화²⁾와 깊은 관련이 있다. 경기가 불황이고 더 이상 이윤을 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부실기업을 통폐합하고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시켰다. 그리고 다수의 유류인력(실업자)들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늘려나갔다. 그에 따라 회사에서 저임금·고강도의 노동을 강요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더라도 반항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만 하며, 조금이라도 반항할 경우 그것은 해고를 의미한다. 그 결과 권력관계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보루로서 단결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했으며, 경쟁적 분위기가 팽배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비정규직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서서 이제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불안정노동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남성/여성, 정주(한국)/이주(외국인) 등 분할의 선을 따라서 차별적인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다. 즉, 여성노동자들이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며 비정규직화, 빈곤화됨에 있어서 국가와 자본은 남성노동자들을 포섭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IMF 때

2) 간접고용(파견, 용역, 파청 등), 기간제고용(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등),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등의 비정규직이 일반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이 불안정해짐을 의미한다.

량해고 당시 남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의 해고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지지하면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였다. 작년 큰 화두였던 이주노동자 문제에서도 '외국노동자'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일자리가 모자라다'는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면서 이주노동자를 억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처럼 노동자들 내부의 각종 차이들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일부는 포섭하면서 나머지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정권과 자본의 논리는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교묘하고 철저하게 노동자들의 단결을 무력화시키면서 공동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노동조건은 나날이 후퇴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은 더 많은 착취 속에서 빈곤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의 분할·배제 전략 속에서 여성노동권을 제기한다는 것의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로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보다 전략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책임질 수 없는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제기하면서 오늘날의 사회구조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인식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제기했을 때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포섭·배제 전략의 허구성, 포섭에 대한 환상을 드러내면서 비판할 수 있다.

5. 이 땅 여성들의 권리를 제기하고 옹호해 나가기 위한 실천적 과제들

앞서 언급했듯, 여성노동권 투쟁은 신자유주의 하에

3) 이들은 항상 이주노동자라는 말보다는 외국인노동자라는 언어를 구사하는데, 이는 외국인이라는 언어가 인종적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이주라는 말은 오늘날 보편화된 노동자들의 국제적 이동을 인정하면서 이들의 권리가 특정 국가 내부인/외부인의 분할선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서 지배계급이 책임지지 못하는 문제를 '민중들의 최소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제기하면서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변화를 추동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 투쟁은 여성들의 삶을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이나 시설노동자들과의 일상적인 관계맺음, 일상 속에서의 어머니에 대한 배려 등은 심급은 각각 다를 수 있어도 모두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물론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드세게 벌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산적한 문제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노동과정에서 겪게 되는 성폭력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항상 웃어야 한다는 이유로 불쾌한 경험들에 대해 대항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정당하게 대항했다가도 그 위대한 '고객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위압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의 빈곤화를 저지하기 위해 실천한다고 했을 때, 현재의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가족임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며 '생활임금'과 같은 고민을 진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전반도 여성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구체적

4) 가족임금은 가족 내 아버지를 가정의 생계부양자, 가사노동과 재생산 노동을 하는 어머니와 2인의 자녀 등의 구성을 가지는 기존의 가부장적 모델을 그대로 반영하여 책정하게 된다. 이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 모델이나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며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의 가족 구성에도 적용되어 실제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인 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의 단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실천들 속에서 고민이 진척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성노동자들, 여성운동 단체들, 각종 사회단체들과 더불어 학생들이 고민을 나누고 함께 실천하면서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작년 '간병인도 노동자다'라는 구호를 걸고 투쟁하여 승리한 여성노동자들, 고려대학교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⁵⁾을 기억하면서 연대의 자세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제기하는 희망찬 2005년을 만들어나가자.



5) 작년 서울대학교 간병인노동자들이 간병인으로서의 최소 노동조건을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간병인들의 노동은 주로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자세를 정기적으로 바꿔주거나,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여주는 등의 '보살핌 노동'이었고 간병인들은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은 법적으로는 가사노동과 흡사하게 분류되어 노동법상의 보호를 전혀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투쟁 과제 해설

반성폭력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성폭력하면 많은 사람들이 강간을 떠올린다. 하지만 성폭력은 더 넓은 의미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라고 정의한다.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언행은 모두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결정권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성적 행동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이 여타의 다른 권리들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시민권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런 정의에 비추어본다면 성폭력은 강간만이 아니라 더 많은 범주의 폭력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의 의미가 이렇게 정의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성폭력은 여성이 아한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녀서 발생하는 것이다', '남성의 성욕은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폭력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미 순결을 잃은 여성에게는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폭력은 여성을 소유한 가부장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등등, 성폭력에 둘러싼 왜곡된 주장들 안에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권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특히 성적 보수주의의 입장에서는 성폭력이 여성의 권

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조를 가지고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이분법의 전제 하에 성폭력을 가부장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였으며, 그보다 성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프리섹스를 주장하며 여성이 순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성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여성 해방이 가능할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성관계 내에서의 여남의 권력관계의 발현과 그로 인한 폭력들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을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로 법제화시키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는 반성폭력 운동의 궤적이기도 하며 그것은 많은 여성들과 여성 단체들의 노력과 희생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성폭력이 이렇게 개념화되기 시작하면서 강간을 넘어선 일상 속에서의 많은 성폭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술자리에서의 언어 성폭력, 데이트 내의 성폭력, 강의실 내의 교수에 의한 언어 성폭력 등 일상 속에서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한 언어들에 명확하게 포착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2004년도에는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성폭력의 개념의 확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성폭력은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또는 사랑으로 묶인 친밀한 영역에서도 누구나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냈다.

반성폭력 운동의 앞으로의 과제

반성폭력 운동이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확장시켜왔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이 법제화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었던 만큼 일상적인 영역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보장될 수 없다. 이번 밀양 성폭력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의 측면이나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던 수많은 네티즌들의 글들은 피해자가 발미를 제공하였다. 그 정도는 실수로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일천한가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마저도 아직까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에 여경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법제화 이후에 일상적인 의식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반성폭력 운동이 전개되지 못한다면 법 자체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상 속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은 끊임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기반하고 있는 자유주의의 '권리' 개념을 바꾸어내는 일이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의미가 올곧게 서기 위해서는 '권리'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반성폭력이 부딪치고 있는 역공격(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온라인상에서의 비난)이 단순히 마초들의 공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근대 사회에서 출발한 인간의 '권리' 개념은 근대 사회의 주체인 보편적인 '개인'을 '남성의 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의 몸'을 반영하지 못함

으로써 '남성의 권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대우 명제로 병역을 지지 않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시민권에서 어떻게 배제되었는지를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권리 개념을 여성의 차이를 반영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반성폭력 운동의 관건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비단 몸체에 대한 권리를 넘어서 학습권, 노동권 등의 권리에서 여성의 남성과의 차이를 드러내고 여성주의적으로 권리 개념을 바꾸어 내는 일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일이다.



투쟁 과제 해설

반성매매



0. 거리를 거닐다가 문득

거리를 거닐다가 새로 문을 연 가게 앞에서 춤을 추며 홍보하는 '도우미' 언니들을 보면서 문득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다. 저 언니들은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언니들은 무엇을 팔고 있는 것일까? 물론 새로 문을 연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상 그 언니들이 파는 것은 남성중심적 시선에서 바라본 '짧은 치마'와 '긴다리'인 것이 아닐까?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1. 여성의 몸에 대한 극단적 폭력으로서 성매매

여성의 몸에 대한 대상화와 상품화는 비단 도우미 언니들의 모습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각종 광고에서 여성의 몸을 부분부분으로 절단하면서 오로지 남성들의 성적욕망을 자극하도록 구성된 장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화와 상품화의 극단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극단에 바로 성매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극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성매매가 앞의 예들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동일한 수준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극단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

매매에서는 오로지 여성의 몸 그 자체만이 남기 때문이고, 그 몸 자체에 대한 남성들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성매매 여성들이 마치 수용소에 갇힌 것처럼 물리적으로 감금되는 등의 반인권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주나 조폭 혹은 남성 '고객'들로부터 수치심을 유발하는 각종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질병에 걸려도 제대로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등 성매매 여성들이 처해있는 삶의 조건은 그 자체로 매우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의 남성중심성 그리고 여성의 반곤화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남성중심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성의 몸을 사고 팔수 있다는 사고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매매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대부분이 여성이며, 성을 구매하는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남성의 성욕은 무한하고 통제될 수 없는 것이지만 여성은 성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한다. 성욕을 드러내는 여성은 창녀로서 규정되어 낙인찍혀 버리고, 연애편계나 부부관계를 통해 욕망을 통제하는 여성은 성녀로서 규정되어 찬사를 받는다. 이러한 창녀/성녀의 이분법은 여성의 역할 모델

을 남성의 시각에서 정형화시키면서 통제하는 것인데, 항상 여성은 조심하게 행동해야하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양전하고 순응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성매매로 유입되는 여성들의 사례를 보면 가족의 병원비를 마련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혹은 청소년 시절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빈곤'이라는 조건에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나선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직업의 선택지는 매우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매매로의 유입경로를 밟아가기에 매우 쉽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당연히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취업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으로 직종을 분리시키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아니니를 따지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범주를 규정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매우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전사회적으로 만연한 남성중심적 질서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빈곤문제가 맞물리면서 벌어진 극단적인 폭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는 성매매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남성중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반대한다는 것은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거래의 대상으로 환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고,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에 반대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소중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3.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상황들.

그리고 고만의 단초

하지만 성매매에 반대하는 실천들을 벌여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항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연말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했다. 성매매방지법은 그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마련

을 위해 혼신을 기울였던 여성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경제에 큰 타격이 온다거나 남성들의 욕구를 가로막는 반인권적 법안이라는 등의 남성중심적인 비판이 제기하기도 했지만 법안은 무사히 시행될 수 있었다. 집중단속기간을 거치면서 여성부를 비롯한 일부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여성의 인권증진의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 시



위에 나섰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성매매방지법입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 시위에 나서자 가장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은 “포주들의 압력으로 시위에 나왔다”는 안타까운 시선이었다. 하지만 농성을 진행하며 처절하게 싸우는 그녀들의 모습에서 오로지 안타까움 ‘만’을 느낀다면 또 다른 ‘진실

(?)’을 발견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녀들의 시위 속에서 그동안의 ‘성매매 반대’ 주장이 일정부분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

4. 국가, 법, 반곤, 이데올로기

그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간 한국 반성매매 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법 집행을 통한 성매매 근절’이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를 불법화 하면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이 성매매를 없애기 보다는 그것을 더욱 음성화된 형태로 유지시키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성매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던 그간의 국가의 모습(?)을 통해

가 ‘남한에서 미군 주둔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는 기지촌 주변의 미군매춘을 장려하였다. 동두천, 송탄, 이태원 등 기지촌이 있던 지역은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예술촌 형비재E-6를 통해 외국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있다. 한편 70년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외화획득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장려한 정부는 성매매를 애국적인 행위로서 칭송하면서 성매매를 확대하였다. 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창가가 엄연히 거대한 규모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법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성매매를 장려하고 정착시켰기 때문이



유추해볼 때, 국가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성매매를 적정수위로 조절하고 통제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이 “생계를 보장하라!”며 거리에 나섰을 때 그 외침이 포주들의 강제였을지는 몰라도, 포주들의 의도만으로는 환원할 수 없는 ‘빈곤’의 문제를 제기한다

고 한다면 여기에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들과 동시에 제기되는 반성매매 운동의 형태를 만들어갈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5. 고민의 단초를 이야기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들의 운동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안으로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실천과 운동을 통해서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 탈성매매화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사회 전반의 남성중심적인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바꿔내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가 여성의 몸에 대한 대상화와 상품화의 맥락에 있으며, 남성중심이데올로기와 여성의 빈곤화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발본적인 비판과 더불어 사회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과정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포주와 유착하면서 오히려 성상납을 받는 등 국가경찰력의 부정비리를 일삼았던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회진보연대, 김정은

■ 성폭력 더 깊게 알기

성폭력을 다시 쓴다 정희진 외 (한울)

이야기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 수잔 브라이슨 (인행)

성폭력을 다시 쓴다 전순옥 (한겨레 신문사)

변해정,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여성의 차이」, 『섹슈얼리티 강의』

배은경, 「성폭력을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 8호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13호

『Imagine』 2004 봄

정인경, 「성폭력과 성적 차이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공감 2003

■ 성매매 더 깊게 알기

원미혜,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민경자, 「4. 한국 매춘여성운동사-성 사고 팔기의 정치사 1970-80」,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김효선, 「매춘 여성의 성과 사랑」, 『새로쓰는 성 이야기』, 『또하나의 문화』 8호, 1991

유태희, 「우리가 매매춘 여성을 바라볼 때」, 『여성과 사회』 10호, 1999

『매매춘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 <알> 2002년 6월호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 여성 노동 더 깊게 알기

『새 여성학 강의』 9장 역사속의 여성의 일

『여성과 일』

『노동과 페미니즘』 1장 노동 개념 새로보기-김정 노동 이해를 위한 시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우에노치즈코 (가사노동 분쟁)

『가부장제 이론』 8장,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3부 1장, 국가이론과 페미니즘 2장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국가 개념의 이론화를 위한 한 연구

『여성이론 3호』 노동 자원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연구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3 2000년대 여성의 일

『진보평론 2호』 (스스로 커가는 풀뿌리 조직, 서울 여성 노동 조합)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페미니즘의 시각』





■ 2004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성 관련 5대 뉴스

• 이 코너에서는 지난해에 일어났던 여성 관련 5대 뉴스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밀양 성폭력 사건

지난 12월 7일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여중생 3명을 유인해 1년여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남 밀양 지역 남고생 41명을 붙잡아 수사 중인 것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당시 17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24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사건은 공개되자마자 큰 충격을 던져주며 사건의 윤바를 해결을 바라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1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난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수사팀은 지난 3월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폭력 사건의 신고 접수에서부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이 크게 강화됐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1) 여경조사(입회) 신청 묵살 2) 여경조사제도 적극 활용 안 함 3) 진술녹화 (진술녹화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또다시 수치심을 느끼며 같은 진술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도록 증거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 무시 4) 가해자 피해자 대면금지 위배 (성폭행사건 수사에 있어 피해자를 가해자들과 대면시키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또다시 위협을 느껴야 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가해자 가족들과 마주쳐 "신고하고 잘 사나 보자"는 등의 협박까지 받아야 했다) 5) 수사교육 소홀 6) 가해 가족의 협박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덮어버렸으며 폭언까지 가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밀양 성폭력 사건이 전면 재수사되면서 선정적 보도, 확인 취재 미흡, 피해자 인권을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 등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이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언론에 '두목, 성기구, (실제 성)양...' 이란 단어들 등장했다. <동아일보> 첫 보도를 내보낸 지 일주일만에 이뤄진 '확인취재', <조선일보>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보도, <가톨릭방송>는 피해자 가족들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 여학생의 거주지를 구까지 표기하고 성씨까지 노출시켰다. 언론은 '피해자 두 번 울린 경찰' '성폭행 피해자 인권 어디 있나' 등의 기사를 쏟아내며 연일 경찰을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언론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2. 법원 '아내 강제추행 첫 유죄판결'



아내를 성폭행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8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K(4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간 강제추행 인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970년에 부부간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사안은 부부간 강제추행의 경우로 대법원 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판

례가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더라도 30년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성적 결정권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성관계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84년 결혼한 여성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첫 판결, 영국에서도 94년 부부 강간을 처음 인정했고, 독일에서도 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법률상 아내가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11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부간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3. 성매매방지법 9월 23일 시행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은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감금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후인 2004년 9월 23일부

터 시행되었다. 내년에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집창촌(이하 집결지)을 폐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예전 성매매 행위 처벌법이었던 율령행위등방지법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율령' 용어를 '성매매'로 대체한 점, 이에 따라 업주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 성매매 여성 중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설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관계는 무효가 된 점이다. 무엇보다 9월



23일 이후 한달 동안의 집중단속이 이 법의 시행의 사회적 파급력을 높였다. 그러나 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성매매방지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선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던 여성단체의 경우 성매매 여성을 사회적 피해자로 규정해 비범죄화하는 개정운동을 준비중이고,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은 집회와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법 집행이 음성적 성매매는 단속하지 못하면서 눈에 쉽게 드러나는 집결지만 집중 단속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의 취지에도 무색할 만큼, 충분한 재정과 종합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간병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2003년 9월 1일, 서울대병원이 88년부터 운영했던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면서 시작되었다. 투쟁은 '중간착취 없이 일하고 싶다'란 소박한 요구에서 시작되었고, 8개월 동안의 기나긴 투쟁 끝에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투쟁은 간병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조합 건설로 이어졌다. '서울대병원 재자리 찾기 공대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대 22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38명의 간병인들을 직접 만나 간병인 유료소개소, 간병인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본래 이런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해야 할 사업이었다.

공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조사대상 업체 중 23개 소개소가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공급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적인 노동시간(주6일, 하루24시간)에도 불구하고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간병인들은 유료소개소의 중간착취와 더불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간병인들은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5. 철도청, 2년 차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 31명 집단해고

철도청은 지난 3월 3일, 2003년 4월 20일 노조와 합의한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약속도 어긴 채, 2년 차 여승무원 31명에게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및 철도 비정규직 철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5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새마을호 여승무원 해고철회와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다양한 연대단위의 힘으로 집회가 이어졌고, 매일 오후3시 여승무원과의 간담회, 밤늦은 시간부터 아침까지 열차 안에 스티커를 붙이는 선전전도 있어왔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말바꾸기를 반복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승무원 재계약은 절대 안 된 다던 철도청은 전원 승무원 재계약을 합의했다. 또한 서울열차 소속 20명의 여승무원이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승리이다. 공동대책위는 이 투쟁이 정규직화 쟁취 투쟁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 투쟁을 기폭제로 철도 현장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촉발하고자 한다.

새마을 여승무원 정규직화 투쟁은 철도청의 비정규직 고용, 여성차별적 고용 현실을 알려냈

다. 새마을호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여승무원'이란 직무는 그 자체가 비정규직임을 의미한다. (남)승무원은 정규직이다. 열차표를 판매하는 노동자들도 철도청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고, 직접 고용된 철도 비정규직만 해도 그 규모가 3000여명이다. 열차를 청소하는 아줌마들과 같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까지 합하면, 철도현장의 비정규직 규모는 '조사하기에도 어마어마하다. 여기에 2005월 1월 1일로 공사로 전환하면, 부족한 인력충원 5000여명을 외주, 용역을 통해 채용할 예정이어서, 공공기업으로서 철도청은 비정규직 고용의 선두주자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여승무원 정규직화 시한을 담은 노동조합 공문에 철도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연말과 새해에도 매주 화요일, 금요일 아침에는 고속철도 대합실에서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철도 현장의 '여성차별 반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연대(連帶)가 더욱더 절실할 때이다.



■ 05년 우리가 봐야할 추천 영화

바그다드 카페 (1988) & 연어알 (1991) - 감독 페시 에들론



<바그다드 카페>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황량한 사막의 도로변, 브렌다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오는 독일 여인 자스민의 모습과 'Calling You'라는 노래였다면, 또 다른 영화 <연어알>에서는 알래스카의 얼음땅 위에서 로즈위타를 태운 썰매를 끌고 가는 카츠뷰의 모습과 'Barefoot'이라는 노래일 듯. 여자들간의 만남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삶의 활기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두 편의 영화는, 언제나 그 풍경과 노래를 함께 떠올리게 한다.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1991) - 감독 존 에브넛



이제는 고전이라 불리워야 할 영화. 잇지와 루스 두 여자들간의 사랑과 그들의 식당을 둘러싸고 함께 하는 공동체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여자들의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던져버리고 새롭게 꾸민 그 행복한 공동체(?)는 몇십년 이후를 살고 있는 한 중년 아줌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

흥미롭게도 이 영화를 감독한 존 에브넛 감독이 제작한 여러 영화들 중 하나가 <그녀를 보 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연결되고 혹은 스쳐 지나가는 여섯 여자들의 이야기들. "하긴 여자의 인생이 관심거리나 되겠어."라고 울조리는 그녀들의 삶, 그러나 그것이 주는 공감의 힘과 여운.

올란도 (1992) & 탱고 레슨 (1997) - 감독 샐리 포터



얼마 전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달리웨이 부인'을 모티브로 씌어진 소설 <디 아위스>가 영화화되어 개봉되었다. 샐리 포터의 <올란도> 역시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을 영화화한 것. <디 아위스>가 시대를 달리하지만 또한 겹쳐지기도 하는 각 인물들의 삶을 통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올란도>에서는 성의 경계, 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한 인물 안에 모든 것이 펼쳐진다.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감독이 화자로 등장하는 <탱고 레슨>에서도 여전하다. 사랑과 삶에 대한 열정, 그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아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피아노 (1993) - 감독 제인 캠피온



제인 캠피온의 영화들 중, 칸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피아노>가 가장 유명하지만, 그 이전 호주에서 만든 초기 작품들을 베스트로 꼽는 사람들도 많다. 사랑과 섹스, 가족간의 문제를 전복적인 여성성을 통해 이야기하는 특이한 영화 <스위타>, 외모로 인해 외면당하던 여성이 문학을 통해 자신을 '말'을 찾고 작가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그린 <내 책상위의 천사>가 바로 그 작품들. <피아노> 이후, <여인의 초상> <홀리 스모크> 등을 통해 여성의 육체, 여성적 감수성과 환타지, 정체성의 문제들을 꾸준히 다루고 있다.

(참고 제인 캠피온의 작품들은 <홀리 스모크> 이외에는 모두 비디오로 출시되어있다.)

안토니아스 라인 (1995) - 감독 마린 고리스



안토니아의 가계에서는 실제 혈연관계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여 함께 기르고, 상처입은 사람을 위해 벌을 받아야 할 자를 용서를 하지만 폭력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씨를 뿌리고 거두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가는 그들은, 권위가 지배하지 않는 풍요로운 식탁에서 둘러앉아 행복한 웃음을 나눈다. 그것이 안토니아의 지혜로운 공동체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탁월한 공동체 이야기를 선보인 마린 고리스의 다른 영화들을 찾기로 매우 어렵다. 자료에 의하면 86년도 작품인 <깨진 거울 속의 여인들>(원제 Broken Mirrors)이 비디오로 출시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구석진 곳에서 쓸쓸히 외면당하고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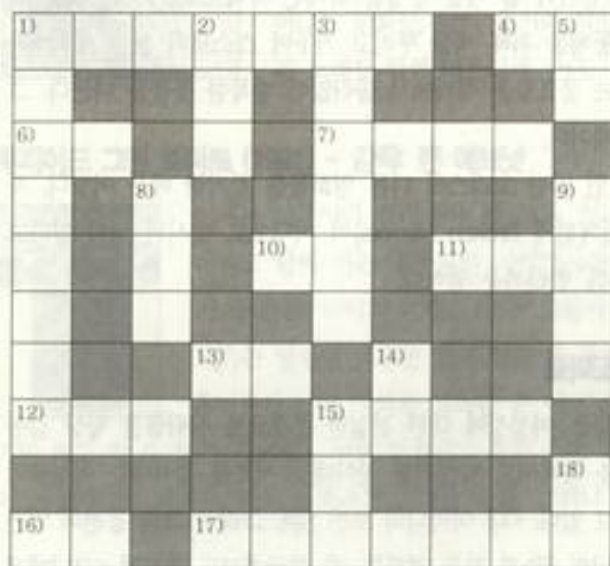
내 어머니의 모든 것 (1999) -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알모도바르 감독의 많은 영화들은 여성성에 대한 진실한 존경으로 사람들을 항상 감동시킨다. 그 속에는 삶의 어두움 속에서도 빛줄기를 찾아내듯 서로를 찾아내는 여성들의 연대감과 사랑이 항상 자리잡고 있다. <내 어머니의 모든 것>, 그리고 그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듯이 느껴지는 <비밀의 꽃>과 같은 영화들. 곧 한국에서도 개봉될 <그녀에게 (Talk to her)>는 어떨까. 이미 본 사람들이 앞다투어 찬사를 바치는 이 영화를 기다려 볼 일이다.

추천영화 출처 안니네

여성주의, Cross Word



가로 풀기

1) 성폭력은 '□□ □□ □□'에 대한 침해이다. '□□ □□ □□'이란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결정권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성적 행동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이 여타의 다른 권리들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시민권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우리가 97주년 3.8 여성의 날 문화제에서 만나게 된 것은 정말로 큰 □□입니다. 앞으로 여성주의적 실천 열심히 합시다^^

6) □□은 성매매의 잘못된 표현으로써, 여기서의 매(賣)는 '판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을 판다'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성매매가 여성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성매매가 여성에게 폭력이라는 것과 성을 사는 주체를 은폐함으로써 성매매에 관한 담론을 왜곡한다. 그러므로 '성매매'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7)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작업장을 폐쇄하는 일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자본이 탄압하는 수단이다.

10) 밀란 쿤데라는 '권력에 대한 민중의 □□은 망각에 대한 기억의 싸움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1) 월경의 순 우리말입니다.

12) 반성폭력 운동이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확장시켜왔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이 □□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었던 만큼 일상적인 영역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보장될 수 없다.

13) 여성 인권이 막 싹트기 시작하려는 중세 시대 남성들은 자신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녀들을 억압하기 위해 종교와 광기의 희생양으로 여성을 택했다. 3.8 기화단은 여성의 눈으로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남이 함께 행복하고 유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여성, '□□'에게 긍정성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16)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중 하나는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거나 특이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친밀한 영역에서의 성폭력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의 70%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내에서의 성폭력도 그 예라 할 수 있는데 동의에 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의 요구나 성관계의 요구는 아무리 □□가 친밀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여성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 단적으로 연애 관계 내에서의 성관계가 해어지고 난 이후에 남성에게는 무기가 여성에게는 대외적으로 숨기고 알려지면 안 될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의 폭력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커다란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다. 이것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을 1차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에 있으며, 남성의 언어만이 보편적인 언어로 간주되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피해자의 언어는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지금까지의 언어가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언어를 '객관'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세로 풀기

2) 4월로 미뤄진 비정규계약안은 "사유 제한 없어 확산" "기업도 교육 부담" □□□□ 사용 3년 명시함으로써 노동계 계약기간을 최대 3년으로 명시하고 3년을 초과한 □□□□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권리가 신장된 듯 겉으로는 보이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 사용에 대해 '기간'만 제한하고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영속적인 업무에 대해서까지 □□□□가 확산돼 대다수 노동자들이 상시적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3년 이상 된 □□□□ 노동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도 사용자들이 기간제 노동을 쓰는 핵심 이유인 고용 유연성을 포

여성주의 Cross Word

기하며 3년을 넘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보호망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출처: 한겨레)

3)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더불어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화 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자의 빈곤화가 급격하게 이루어 지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빈곤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 □□는 중요한 투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solidarity'의 번역어입니다. 우리가 □□ 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

8)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말한다. □□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정의되면서 범주가 강간에서 일상 속에서 연애 내 또는 강의실 내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범주가 확대되었다.

9) 3.8 여성의 날은 97년 전 여성 노동자들의 봉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현재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파악하고 여성들의 □□□□에 나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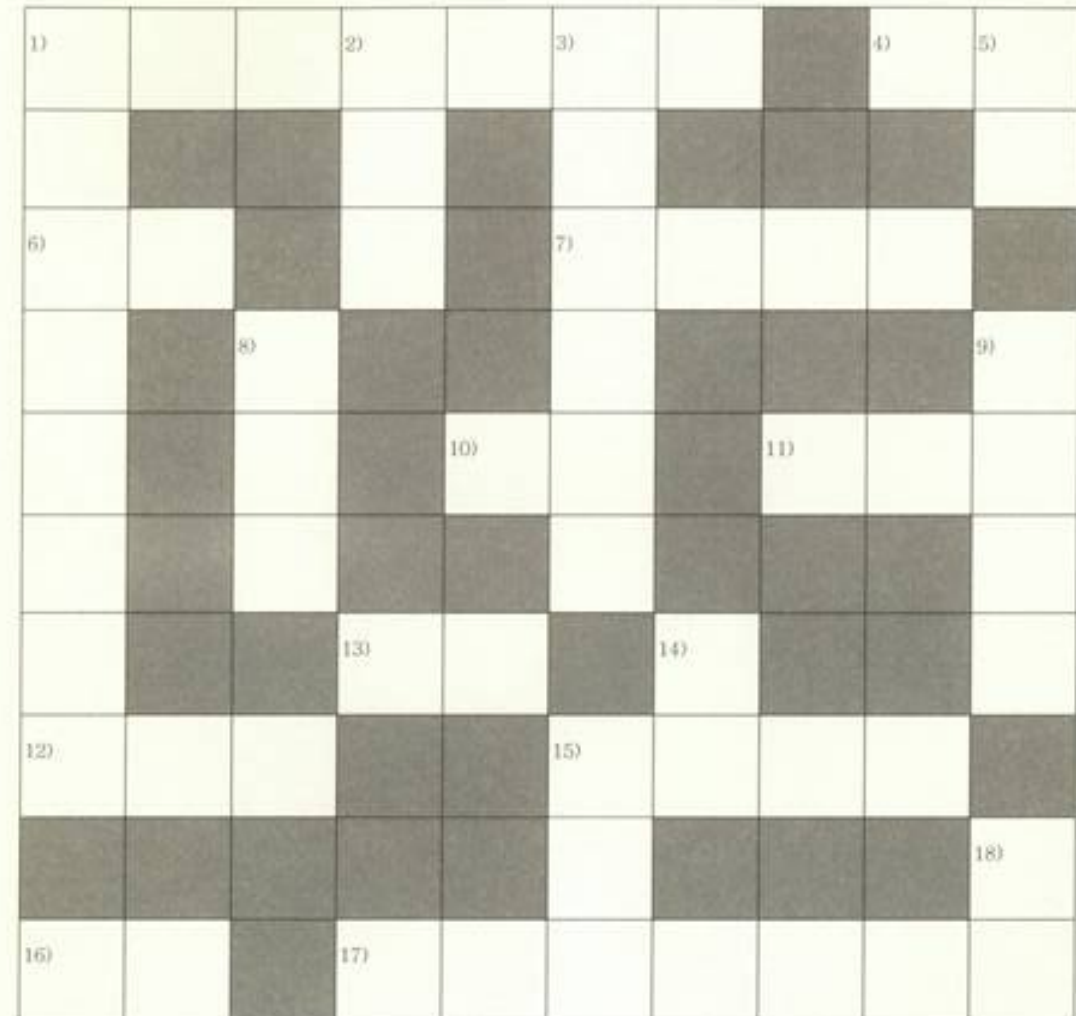
14) Disorderly act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많은 사람들은 술자리에서의 성폭력을 □□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며 무의식에서 한 행동이 어떻게 성폭력이 될 수 있느냐며 성폭력 성립 여부를 부인하려 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성폭력의 유무를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에서 찾으려는 잘못된 생각이다.

15) 국내 총생산을 측정하는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생산은 측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는 과소 측정된다. □□□□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생산되는 것이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노동으로 간주되는 □□□□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윤택되어 있는 공사구분 이데올로기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사회에서 재생산 노동이라는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한다. 가정주부인 엄마를 가리켜 아이들이 '나네 엄마 뭐하시니?'라고 물으면 '우리 엄마는 집에서 놀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사고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18) 여성의 □□ 없이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성폭력이라 할 때 여기에서 □□는 yes와 no를 넘어서 □□ 자체가 여남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놓여져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Cross Word 용모지



크로스 워드를 다 풀면 3.8 문화제 당일 날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상자에 넣어 주세요! 추첨하여 5분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단위와 이름, 연락처를 적어 넣어주세요. 추첨은 문화제 마지막에 합니다. ^^